

5/28/23

설교 제목: 참된 금식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7 장 1-14 절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스 7:1) 다리오 왕 제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절관주** 느 1:1

(스 7:2) 그 때에 베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스 7:3)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절관주** 신 17:9, 말 2:7, 렘 52:12-14, 스 8:19, 스 12:12-14

(스 7:4)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 7:5)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절관주** 스 1:12

(스 7: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스 7:7)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나 하시니라 **절관주** 렘 22:21, 렘 17:26

사로잡혀 가는 까닭

(스 7:8)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 7: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스 7: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스 7:11)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속 7:12)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속 7:13)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절관주** 렘 11:10, 렘 14:12

(속 7:14)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흠뻑하였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서는 전반부(1-6 장) 삽입부(7,8 장) 후반부(9-14 장)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에는 여덟 가지의 환상을, 삽입부에는 두 개의 메세지를, 후반부에는 두 개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삽입부 두 개의 메세지 중 금식에 대한 메세지입니다. 전반부 여덟 가지 환상이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삽입부 두 메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메세지를 통해 금식이 단순히 행위에 그친다면 그것은 참된 금식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삶의 회복으로 발전되어 나타나야만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사년 구월에 벳엘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래로 지키고 있는 오월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속 7:1) 다리오 왕 제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속 7:2) 그 때에 벳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속 7:3)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 제이년 팔월이었으니 이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기 시작한 후 약 2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BC 518년경으로 성전 재건 건축이 다시 시작된지 2년이 지나 성전이 절반 정도 지어졌습니다. 참고로 제 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지 4년만인 BC 52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차례 금식일을 정하여 지켰습니다. 이 금식일들은 모두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건들을 애도한 것입니다.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을 애도한 금식이며,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애도한 금식입니다.

7월 금식은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달리아를 비롯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당한 것을 애도한 금식이고,

10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거의 모두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애도한 금식입니다.

이 금식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치욕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금식이 일종의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벤엘 사람은 5월 금식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통해하여 행한 것인데 지금 성전이 절반 정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마당에 이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슥 7:4)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속 7:5)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속 7: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네 금식 중 5 월과 7 월 금식을 언급하십니다.

5 월과 7 월 금식이 크고 대표적인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고 두 번씩이나 반문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 너희들의 먹고 마심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고, 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한 금식의 동기와 목적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금식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금식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여야 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금식일을 정해 금식할 때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며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다시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동기나 목적은 희미해지고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였을때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형통했고 심지어 사막 지대인 남방과 평원까지 축복받은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속 7:7)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나 하시니라

결국 당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금식을 했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이 지키라고 명한 것들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속 7:8)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속 7: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속 7: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공정한 재판과 인애 곧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금식이 드러졌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 58: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데도다

(사 58: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 58: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사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 (사 58: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 (사 58: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 (사 58: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 (사 58: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 (사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상기시킵니다.

- (수 7:11)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 (수 7:12)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 (수 7:13)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 (수 7:14)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흠뻑하였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뻑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셨고 성전이 파괴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땅을 70 년 동안 버려지게 하여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신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삶 속에 공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규례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냐고 반문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회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